가상악기로 음악 창작 지평 넓혔다

전북대 산학협력단 지능형 국악 저작도구 개발 가상악기로 제작한 '가상노리' 음원 선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패턴, 프레이즈, 모티프(PPM)' 기반의 지능형 국악 저작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만든 국악 앨범 '가상노리'를 엠넷, 멜론 등의 음원사이트를 통해 7월 선보였다.

PPM기반의 국악 저작도구는 한국 전통의 감성을 지능형 기술로 재현하여 실물 악기에 의한 스튜디오 녹음 과정을 생략하고 소프트웨어만으로 국악 콘텐츠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류 시대에 맞춰 다양한 국악 콘텐츠가 생성될 수 있도록 음악 창작인에게 국악기 소프트웨어 악기 및 루프(loop)로 개발된 악구 소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6년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 및 제작되었다.

기존의 가상악기는 악기 소리만을 제공할 뿐 음악적 의미를 갖춘 표현은 모두 음악 창작자가 스스로 만들어 내야했다. 반면 이 도구는 샘플과 악구 소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맥락에 맞춰 악구의 변형, 활용을 가능케 하는 모티프 기능을 탑재하였다. 이를 통해 음악 창작 과정에서 국악적 표현 능력의 대폭적인 확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각각의 악기는 1000개 전후의 단음 샘플과 한국 전통음악의 대표적 악구 100건 이상씩을 탑재하고 있다. 이처럼 대용량의 데이터를 통해 자연스러운 국악기 연주를 재현하였으며 한국음악 전공자들과 노찾사 등에서 활동했던 현업 음악인들이 개발을 주도하여 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올해 타악기 연구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상용화에 돌입할 예정인데 현재는 가야금, 아쟁 등 5개 현악기 및 대금, 소금 등 5개 관악기를 대상으로 베타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7월 발매한 '가상노리' 앨범은 국악 가상악기를 활용한 음원의 표본이다. '강원도 아리랑', '희망가' 등 4곡이 담겨있는데 마치 실제 악기로 연주한 것 같은 높은 완성도를 경험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악 가상악기는 드라마 배경음악(BGM), 행사 개·폐막식, 학습 교재에 사용되는 음악 등의 제작에 두루 활용될 수 있으며, 기존 음악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 열린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 공연을 위한 데모 음원 제작과 장편애니메이션 '달빛궁궐'의 BGM 제작 등에서 창작자들에 의해 활용된 바 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병오 교수는 "음악산업 내에서 특색 있는 음원 개발을 위해 힙합,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재즈 등 장르 간 융합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국악은 매우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르 간 활용이 매우 더디다"고 말하며, "이번에 개발된

국악 가상악기를 활용하면 국악 전문 연주자가 아니더라도 고급의 국악적 질감을 쉽게 재현할 수 있어 국악 콘텐츠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개발을 지원한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K-pop의 인기로 문화한류를 실감하는 때에 우리 고유의 악기와 소리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개발 프로젝트"라며, "국악 가상악기가 상용화되기까지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본격 추진

남원시가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7일 남원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10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문화도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문화도시에 지정된 지자체에 2020년부터 5년 동안 최대 200억원(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올 8월말까지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조성계획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승인할 방침으로, 승인을 받은 지자체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 조성계획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문체부는 그 결과를 심의해 내년 말 문화도시 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화도시 사업(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남원시가 이번엔 본격 문화도시 사업에 도전, 올해까지 진행하는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예비사업 성격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남원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살려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문체부도 남원시가 진행한 문화도시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문화도시 선정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격 문화도시에 선정되면 지역 특색을 살리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독특하고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원시는 2014년부터 올해 말까지 37억5,000만원을 들여 문화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꾼, 남원의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문화버스, 남원의 기억과 추억을 기록하는 메모리즈, 시민들이 만들고 열어가는 축제 판페스티벌, 시민이 작가가 되어 남원의 이야기를 그림과 글로 표현한 남원 이야기 그림으로 길이 되다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했거나 진행하고 있으며, 아트센터(옛 KBS방송국)를 시민들의 문화적 거점 공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문화버스 구석구석 사업에 참가한 시민들

순창 옹기체험관이 여름 휴가를 맞아 관광객들의 체험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색 있는 체험으로 관광객 눈도장

순창 옹기체험관, 휴가철 가족 체험장소로 큰 인기

순창 옹기체험관이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름 휴가를 맞아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의 체험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옹기체험관 측은 최근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면서 7월까지 2천여명의 체험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 여름휴가 관광객이 늘면서 8월 예약인원도 50명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다. 옹기체험관 측은 아직은 관광객이 많지 않지만 최근 발효소스 토굴의 인기로 주변 관광객을 찾는 방문객이 늘고 있고 옹기체험관에서도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올해 관광객이 가파르게 상승할 걸로 기대하고 있다.

옹기체험관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은 타래쌓기체험, 물레체험, 세라믹핸드페인팅(도자기에 그림그리기), 다도체험 등으로 쉽게 접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옹기판접시는 유아 및 어린이 등도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어 미리 준비되어 있는 흙판에 글씨 쓰기와 여러 가지 무늬가 있는 도구 등을 이용하여 모양을 내면 되는데 옹기 특성상 가마에 굽는 과정을 거쳐 택배로 배송해주고 있다. 이때 1주일 동안의 행복한 기다림은 필수다.

또한 체험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 청자기능보유 이수자인 권운주 관장의 창의적인 작품 및 제품개발 활동으로 몸에 이로운 원적외선을 내품는 괄사(주걱처럼 생긴 물건), 옹기종기 미니 다기셋트, 옹기장구 등 다양한 생활소품들을 개발 전시하여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옹기 체험관 주변에는 장류체험관, 장류박물관, 국내 최대 토굴형 저장고인 발효소스토의 가상현실체험(VR), 미디어아트, 크릭아트 등 관광인프라또한 잘 갖춰져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한국뮤지컬협회 새 이사장에 이유리 교수

한국뮤지컬협회가 제10차 임시총회를 통해 이유리(53) 서울예술대학교 예술경영 교수를 제9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 신임 이사장은 현장과 학계를 아우르는 전문가로 통한다.

삼성영상사업단이 제작 투자한 차길진 원작 뮤지컬 '눈물의 여왕', 서울예술단의 '바리'와 '태풍' 등 창작뮤지컬 전문 프로듀서다. 2004년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 뮤지컬과를 설치했다. 한국대학뮤지컬교수협의회 회장이기도 하다.

이 이사장은 "현장과 학계, 정책 연구를 두루 섭렵해 온 노하우를 종합해 한국 뮤지컬시장의 생태계 재정비, 협회의 자생력 방안, 한국 뮤지컬 어워즈의 축제화, K뮤지컬아카데미의 전문화 등 현안 과제들의 발전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